

# 금호타이어 노조 '자구안 동의 거부'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이 위 부자본 유지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22일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사측의 '자구안 동의서 제출'에 맞서 오는 24일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들이 대대적인 '상경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작업조를 시작으로 24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총 파업에는 광주공장, 곡성공장, 평택공장 등의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구계획안 동의에 반대해 24일 전체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외부자본 유지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1조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 상환을 조건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당장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노조는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 조건으로 '2월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을 위한 노사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데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채무연장만을 위한 협약 체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에 경영개선 절차 기간 내 임금동결, 임금체계 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워크아웃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이미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었다"며 "부실 넘어리 중공공장 처리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해결이 선행 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자구안 협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총파업이 이뤄지면 타이어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는 연간 2900백 만개의 타이어가 생산되고 있다. 입단협 결렬에 반발해 지난 2012년 8월 실시된 총파업 당시에는 1일 평균 70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단의 양보로 어렵게 주어진 1개월이라는

## 사측 "총파업 철회·고통분담해 회사 살리자"

## 노조 "또 다시 노동자만 일방적 희생 강요해"

귀중한 시간을 노사가 갈등과 반목으로 허비한다면 금호타이어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24일

예정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집중교섭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수준과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형택 기자



고로쇠수액 채취 22일 경남 함양군 안면면 기백산 자락에서 한수진(28)씨가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를 하고 있다. 이곳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은 당도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

## 판사 동향 문서 존재했다..블랙리스트 여부는 결론 못내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들 동향이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문건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문서들을 공개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장 보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로 정와대(BH)와 의견을 나누고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했다.

대만 문건들이 실제 실행됐는지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은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추가조사위(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법관 언행 관련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이판사판 아담법석' 현황 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의 내부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이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책을 비판·반대하는 법관들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인사를 감찰부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내부 게시글, 익명 카페,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 자

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과 방법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BH와 의견 및 정보를 나누는 정황의 문건도 공개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파일로 BH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BH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문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중을 파악해 알려주려 했다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 파키스탄 "아프간 호텔 인질극 잔혹한 테러"

파키스탄 정부가 2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벌어진 호텔 인질극에 대해 잔혹한 테러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테러 행위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여러 사람이 다친 데 대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외무부는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은 이 비겁한 테러를 통해 아프간 정부와 국민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전한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진심 어린 기도로 잔혹한 테러로 다친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 간 협력의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테러단체를 격퇴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스 킬러슨 미 국무장관도 앞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이번 인질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은 아프간 정부와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평화, 안보, 번영을 달성하려는 아프간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아프간을 계속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무장괴한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자살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아프간 카불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습격해 13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며 정부군과 대치했다. 이들은 호텔 복도를 배회하며 외국인들과 아프간 공무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숙객 14명을 포함해 18명이 숨졌다. 당국이 구조한 투숙객은 외국인 41명을 포함해 모두 160명이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외국인 14명 중 11명은 아프간 민간 항공사 캄에어(KamAir)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10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6명이 군인, 4명이 민간인이라고 덧붙였다. 아프간 정부군도 성명에서 현지 공무원 34명이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회의에 참석차 호텔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아프간 내무부는 무장괴한들의 배후로 카불과 아프간 동부에서 활동하는 탈레반 지부 하카니를 지목했다. 이후 탈레반은 이 인질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에서 탈레반 대원들은 처음에 19일에 호텔을 습격하려했으나 호텔에서 한 결혼식이 열려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 20일 습격했다고 밝혔다.

##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테러공격범 61명 체포

리비아 특수방어부대는 지난 주 수도 트리폴리의 메티가 국제공항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21명이 죽고 69명이 다친 이후, 테러 조직중 61명의 무장단원을 체포했다고 21일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군은 체포된 인원이 메티가 공항과 교도소를 목표로 공격에 가담했으며 체포 당시에 대다수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 6명은 석방했다고 말했다.

유엔이 승인한 리비아 정부는 성명을 발표, 이 테러 공격의 목적이 IS 대원들을 비롯한 테러범들을 내무부 소속 공화 수비군이 운영하는 교도소로부터 탈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트리폴리 공항은 사건이 발생한 뒤 5일 동안 폐쇄되었다가 20일에 다시 기능을 회복했다.

## 폴란드, 신나치주의 단체 수사 착수

폴란드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신(新)나치주의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폴란드 방송 TVN 24가 전한 신나치주의 단체 멤버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고 나치 문양을 불태우는 행동 등을 담은 잡지취체 영상을 보도하면서다.

해당 방송에는 '나치 유니폼을 입은 공지와 현대성(Pride and Modernity wearing Nazi uniforms · PMN)'이라고 불리는 단체 멤버들이 나오는데, 영상에는 이들이 나치 문양인 '스와스티카'를 불태우거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완장을 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문양으로 장식된 생일 케이크 등을 만들어 히틀러의 사진과 함께 축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방송은 이 단체가 작년 11월 폴란드 출신의 중도 성향 유럽연합(EU) 의회 의원 6명의 얼굴 사진을 교수형에 처하듯 나무막대 위에 내걸고 조롱하는 시위를 주도한 배후라고도 지적했다.

미테우시 모리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해당 방송에 대해 21일 파시즘(극단주의적 국수주의)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조상과 폴란드를 위해 (파시즘에 대항해) 싸웠던 그들의 용감무쌍한 정신을 짓밟는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임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진행률	진행률 증가
일반건강검진	42%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8%p	↑

\*본표는 건강검진 참여율이다. 미지 데이터는 건강검진 참여율이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